

축 사

(소안항일문화축제)

2022. 6 . 16 .(목) 09:00 / 소안창조센터

존경하고 사랑하는 소안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제 암흑기에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열두 번째로 열리는 소안항일문화축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축제에 내외 귀빈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즐거움이 배가(倍加)된 것 같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안면의 발전과 면민화합을 위한 헌신하신 공적을 인정받아 면민의 상을 수상하신 이 제 왕 이장단장님께는 그간의 공적에 경의를 표하고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면민의 안녕을 위해 특별하고도 고귀한 공적을 쌓아 공로패와 감사패를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소안면민 여러분!

일제 강점기, 소안면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은 완도군민의 자긍심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불령선인으로 낙인 찍혀 모진 감시와 통제를 이겨내신 소안면민의 불굴의 정신은 완도군민의 정체성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안의 선조들이 숭고한 희생과 불굴의 정신으로 지켜온 조국에서 우리는 평요와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풍전등화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죽음으로 항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켜보면서 새삼 소안면민의 희생이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조국의 소중함이 절실히 느껴지는 때에 개최하는 소안항일문화축제는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생각됩니다.

소안항일문화축제는 단지, 소안면민의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 수준을 넘어 항일역사문화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야합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섬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즈에 맞춰 소안항일문화축제를 완도군의 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소안도가 애국정신 함양의 메카가 되어 활력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소안항일문화축제가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축제를 준비하신 이 범 성 축제추진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소안면민과 내외 귀빈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